

금호아시아나, 금호산업 인수전 '순항'

금호고속 우선매수권 행사로 시간 벌어 자금 확보 유리

대기업 참여 안해 박삼구 회장 인수 가장 유력해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건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강조했던 '순리대로' 그룹이 움직이는 형국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금호산업 인수전은 대기업의 참여 불발로 박 회장의 인수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그룹의 모태기업인 금호고속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6월까지 시간을 벌었다. 금호산업 인수에 전력한 뒤 금호고속 인수마저 마무리 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11일 금호아시아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현재 인수의향서를 낸 기업들로부터 실사를 받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과 크레디트 스위스는 지난 2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호반건설과 MBK

파트너스,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IBK 투자증권-케이스트 파트너스(이하 IBK 펀드) 등 사모펀드 4곳을 입찰 적격자로 선정했다. 인수 후보들은 지난 9일 금호산업에 대한 예비실사에 들어가 4월10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 이후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관사는 4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5곳의 입찰 적격자를 금호산업 인수 유력 후보로 보긴 어렵다. 자금 동원력이 충분하다고 알려진 호반건설의 경우 장부상 끌어올 수 있는 현금은 최대 4400억원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 등을 보유한 금호산업의 가치를 시장에서는 1조원대로 추정하는 만큼, 동원해야 할 자금은 2배를 넘어선다. 호반이 자금을 확보하

라도 문제는 금호아시아나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대가 아무리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도 금호아시아나가 이 금액을 내겠다고만 한다면 금호산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라는 측면에서 국적항공사 인수가 쉽지 않다. 국토부에서는 국적항공사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자본비용 등에서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 자베즈파트너스는 자금규모가 턱없이 작은데다, IBK 펀드(금호고속 대주주)는 금호고속 매각을 위해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지분 50%와 1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금 마련이 관건이겠지만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는다면 인수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 되찾기'에서도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금호고속 인수를 추진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IBK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며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빼고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호리조트 지분 48.8%가 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금액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인수 대금은 향후 3개월 안에 내면 돼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가 짧은 시간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순조로워 보인다"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 대기업이 다시 지역민의 품에 돌아오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0.83 (-3.94)

▼ 금리 (국고채 3년) 1.91% (-0.03)

▼ 코스닥 619.61 (-2.38)

▲ 환율 (USD) 1126.50원 (+3.90)

광주상의 회장선거 경선 가나

부회장단 합의추대 요구 불구 두 후보 침묵

오늘 회장 선출 의원 선거

결국 답은 오지 않았다. 합의 추대를 강력히 요구한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단은 씩씩한 입맛을 다셔야 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제21대 부회장단은 지난 9일 밤 회동을 갖고, 지역 경제계의 분열 및 세력 양분화를 우려해 차기 회장 선거의 유력 후보인 박홍석 현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에게 11일 정오까지 합의 추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후보는 끝내 침묵했다.

이에 따라 12일 열리는 회장 선출을 위한 의원 선거가 '경선이나, 합의 추대'를 가능하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등록 명단이 확정된 뒤 두 후보는 치밀한 표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원 선거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의원 후보에 등록된 112개사 모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데다, 업체마다 성향 또한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여기에 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303개 회원사의 선거권 수도 적게는 1표, 많게는 24표로 다르기 때문에 표를 나눠 찍다 보면 자칫 사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특별위원의 경우 15개 기관(협회) 등 10개 기관을 선출하는데 등록 기관 모두 1표만 가지고 있어 동표가 쏟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연정자 순으로 의원이 선출되는 것도 가능성이 어려운 이유다.

한편, 광주상의 제2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의원 선거는 12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열리며 총선거권 수가 2300표가 넘는 만큼, 개표 결과는 밤 9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률기자exian@

금호타이어 4년 연속

獨 '레드닷 디자인상'

금호타이어의 3개 제품이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올해 상을 받은 제품은 엑스타 HS51와 크루젠 HP91, 실란트 타이어 등으로,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엑스타 HS51는 타이어 옆면에 기하학 도형을 차례로 배치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높인 제품이며 크루젠 HP91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위해 설계된 초고성능 도심형 스포츠 타이어다. 실란트 타이어는 주행 중 못이나 뾰족한 물결이 트레드(접지면)를 관통했을 때 젤리 형태의 실란트 층이 자동으로 이동해 손상 부위를 봉합하는 신개념의 타이어다.



"가정에서도 태양열에너지 얻어요"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SWEET 2015'가 1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한 참가업체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태양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태양광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나주에 전력연구원 분원 설치

대전 연구원 일부 기능 이전

연구인력 2020년까지 150명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분원이 나주에 들어선다. 현재 대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의 일부 기능이 나주로 이전함에 따라 한전이 추진중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의 연구개발 능력도 확충될 전망이다.

한전은 11일 전력연구원 분원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전력연구원은 한전 부설 연구소로 전력기술과 관련한 정정발전 기술·미래 유망 기술 개발, 전력그물망 기술 지원, 전력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인력만 498명에 달하며 2개 사업단과 미래기술연구소, 발전연구소, 송변전

연구소, 배전연구소, 발전기술지원센터, 소프트웨어센터, 고장전력시험센터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대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은 지금까지 별도 지방 분원을 두지 않았다.

한전은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사업 계획에 따라 나주에 전력연구원의 분원을 세우고 전력연구원의 일부 인력과 기능을 분리하거나 신규 연구개발 부문

을 나주 분원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까지 20~50명의 연구인력을 나주 분원에 배치하고 2020년까지 최대 150명으로 연구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한전은 전력연구원 나주분원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 전력기술 개발의 산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연구원 분원 설치는 다양한 에너지 밸리 조성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며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의 주요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역기업 상장 늘려야 자금조달 원활"

광주 찾은 하종원 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장

"기업이 상장하면 간섭이 많아진다고 기피하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장을 자본 조달을 원활 하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등 기업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11일 광주를 찾은 하종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유치부장은 지역기업의 상장유치 효과를 언급하며 더욱 많은 기업들이 상장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지난해 상장 유치 설명을 위해 전국을 누볐다는 하 부장은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기업 정서를 갖고 있고 가계 중심의 영세한 기업이 많아 상장을 꺼리는 편이라 유치가 힘들다"며 "이젠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기업 세화아이앤씨를 언급하면서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투자자나 일반인들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하 부장은 또 세화아이앤씨가 상장되면 대외신인도 향상과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부장은 최근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내추럴앤도텍의 사례도 언급하며 상장 유치를 꺼리다가는 상장하는 다른 기업

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하 부장은 "지역에는 경쟁력이 높은 게임·자동차부품 회사들이 많다. 이들의 상장 유치를 위해 올해 더 노력할 것이다. 조만간 광주시 등과 MOU를 맺고 상장유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상공인들의 반발여론이 거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폐쇄와 관련해 하 부장은 "지역 사무소를 코스닥시장본부로 이관하는 등 조지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광주사무소는 인근 지역 상장 설명회 개최와 기업방문을 주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636 곁과 민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김 김서연" 양이 전국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올림픽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시도 대산프리모